


우리 마음 푸르게 푸르게

글·편집 / 박승수 산림청 민원보호 담당관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산불, 그 난리를 막으려는 우리 임업인의 노력은 눈물겹다. 높은 산꼭대기 여기저기에 산불 감시탑을 세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수 천 명의 산불감시원을 세워놓고도 미덥지 않아 여기저기 수십만 장의 산불조심 현수막을 내다 걸며 이 기슭 저 기슭에 산불조심깃발을 촘촘히 세운다. 그리고도 산불이 기승을 부리면 마른하늘 아래 재단을 쌓고 기우제를 지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산불은 우리가 애써 가꿔놓은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과 가축 그리고 가옥까지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 채 찢터미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이다.

어느 메마른 봄날에 일어난 산불이 천년 고찰 낙산사를 태운일도 있고 고성, 강릉,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의 검푸른 솔밭 수백정보를 몽땅 태운적도 있다. 그 뿐 아니다. 문경 어딘 가에서는 사방사업지를 돌보고 있던 인부 10여 명을 덮친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임업인의 가슴은 솟덩이가 되곤 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푸릇푸릇 새잎이 돋아나지만 산불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임업인은 그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느껴볼 겨를이 없다. 그 잔인한 봄이 떠나고 나면 우리 임업인은 한 숨 돌리며 가슴을 쓸어내려 보지만 곧 여름 휴가철로 이어져 임업인은 또 가슴을 조인다. 행여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혹시 산이 더럽혀지거나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3십여 연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별거승이 민둥산이라 산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산이 푸르러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진데다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까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특히 휴가철 여름이 되면 산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 같은 산림의 밀바탕에는 우리 임업인의 피와 땀이 깔려 있다. 우리 임업인은 광복과 함께 60여 연간을 쉬지 않고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잘 가꿔진 숲 속에 휴양림도 짓고, 등산로도 잘 정비 해 두었으며 여기저기 산림욕장도 마련해 두었다.



이제 울창한 숲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푸르게푸르게 가꿔 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숲은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우리 임업인은 바란다. 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싱그러운 숲의 활력으로 가득 채워 나라 살림도 살찌우고 하는 일도 모두 성취하기를, 그리하여 그치지 않는 맑은 물소리, 청량한 바람소리, 정겨운 새소리처럼 하모니를 이뤄 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여름이 되면 숲은 몸살을 앓는다. 숲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은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한 바탕 놀다 떠난 자리는 먹다 남긴 음식쓰레기와 서슬 푸른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고 불에 까맣게 그슬린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나뒹군다. 그것은 숲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 숲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고 스승 같은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면 숲을 찾아가 위로를 받지 않았던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숲에 들어 길을 묻지 않았던가. 우리가 답답할 때면 숲에 들어 무릎 잡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 숲을 대하는 예는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다. 아무렇게나 신발 끈을 매고 숲에 들어 음식을 짓고 소리를 지르며 빈병을 내던질 일이 아니라 느슨한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더 조이고 옷매부새를 가다듬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산과 나무와 숲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산과 숲에 대한 예일 것이다.

우리 임업인들이 이렇게 정성껏 숲을 가꾸고 다듬는 일은 오늘의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숲을 더럽힌다면 숲은 더러운 물을 내릴 것이고, 더러운 물은 논밭을 오염시킬 것이며, 오염된 논밭에서 생산된 곡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것이다. 그래서 “숲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꿈”이다. 그것은 또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주린 배를 조이고 또 조이며 별거벗은 황토 바닥에 돌을 놓고 때를 입힌 까닭이기도 하다.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할 가장 확실한 미래 유산이다. 그러므로 산림은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산림을 보전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전하는 것이다. 산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림의 나라이기 때문이며 산림의 보전이 곧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강스 시즌이다. 질푸른 숲을 찾아 “산지정화”도 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산림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푸르게푸르게 가꿔보자. **산재**